



오늘의 말씀 - 목 (출 2:11-25)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11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3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떼에게 먹이니라

18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
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20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
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
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
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
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
달된지라

24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본문 이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이 와서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그들을 도와 그 양 떼에게 먹이니라. 아버지가 딸들에게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

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십보라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매 ‘게르솜’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적용

모세가 장성했을 때 (40세, 행 7:23), 세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 (11-12), 둘째, 두 히브리인들의 싸움을 말리며 잘못된 사람을 책망한 일 (13-14), 그리고 셋째, 미디안에서 목자들로부터 르우엘의 딸들을 구해준 일입니다 (16-19).

모세에게 책망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며 모세에게 따지듯 대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말이 바로 하나님

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자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 타국의 나그네가 (22) 되어버린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애굽은 잊어버린 듯 타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해”가 (23) 지났습니다. 그 “여러 해”가 바로 40년 모세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소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요, 모세는 이제 애굽의 궁중 생활과 이스라엘의 고통은 다 잊어버린 듯, 완전히 양치는 자로 정착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

억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24-25). 인생을 끝어서 보면 절망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보고, 듣고, 알고,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절망이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서.

(내일 말씀: 출 3:1-12)